

‘함평 겨울빛축제’ 겨울 빛에 물든 콘텐츠로 빛났다

45일간 16만명 방문…야간 경관·체험프로그램 등 인기
관광비수기 관광객 유치 견인…‘사계절 축제도시’ 확립

함평군이 사계절 축제도시를 표방하며 진행한 겨울빛축제에 16만여명이 방문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11일 열린 폐막식에서는 나비축제 경연대회 수상자 ‘발끈’과 브리스밴드의 공연이 펼쳐졌고, 축제 참여 업체인 용정목장·이가기획·나비뜰 등산은 함평군 인재양성기금에 100만원을 각각 전달해 응경을 전했다.

지난해 11월 28일 시작한 이번 축제는 빛을 활용한 감성적인 야간 경관 연출과 다양한 체험·관람 프로그램을 통해 겨울철 관광 비수기를 극복하는 핵심 콘텐츠로 많은 관광객에게 주목 받았다.

축제 기간 약 16만명의 방문객이 행사장을 찾았으며 축제장 내 음식점과 푸드트럭, 농·특산물 판매 부스 등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3억4000만원에 달해 지역 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시기에서 진행된 프로그램과 야간 체류형 관광객 증가로 지역 상권 전반에 긍정적인 피급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다.

행사장과 시가지 곳곳에 조성된 빛 조형물과 포토존은 가족 단위·젊은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았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홍보 확산으로 함평의 겨울 관광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이번 축제를 통해 함평군은 봄 나비대축제, 여름 블로리 페스티벌, 가을 대한민국 국향대전에 이어 겨울철 대표 축제까지 확고히 구축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축제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한층 공고히 했다.

함평축제관광재단 관계자는 “겨울빛축제가 단순 계절 행사에 그치지 않고 올내 시가지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축제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계절마다 특색 있는 축제와 관광 콘텐츠를 연계해 체류형 관광 기반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함평군 관광재단 관계자는 “겨울빛축제가 단순 계절 행사에 그치지 않고 올내 시가지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축제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계절마다 특색 있는 축제와 관광 콘텐츠를 연계해 체류형 관광 기반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8일 개막해 45일간 진행된 함평 겨울빛축제가 지난 11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사진은 겨울빛축제 폐막식에서 지역 기관·단체들의 인재양성기금 기탁 모습.

순한 계절 행사에 그치지 않고 올내 시가지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축제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계절마다 특색 있는 축제와 관광 콘텐츠를 연계해 체류형 관광 기반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함평군은 이번 축제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해 향후 개최할 축제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함평=최일군 기자 6263739@gwangnam.co.kr

‘나라꽃 무궁화 도시’ 장성군,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산림청 국가 상징 선양
정부포상 전수식서 영예
군 “무궁화 인식 제고 앞장”

장성군은 최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산림청 국가 상징(무궁화) 선양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국가의 상징인 무궁화의 보급 확대, 동산 조성·관리, 연구, 교육 등의 분야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을 발굴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성군은 지난해 8월 7~8일 이틀간 ‘장성무궁화공원’에서 열린 ‘제1회 나라꽃 무궁화 장성대축제’를 통해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린 바 있다.

전남도 무궁화 우수문화 품평회와 무궁



장성군은 최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산림청 국가 상징 선양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화 묘목 나눔, 공연·버스킹 등 다양한 콘텐츠가 호응을 얻으며 2000여명의 발길을 모았다.

축제가 열린 ‘장성무궁화공원’은 지난 2021년 장성군과 두산그룹이 함께 조성 했다.

9500㎡ 부지에 46개 품종, 1만2000여 주의 무궁화가 식재돼 현존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무궁화를 감상할 수 있는 명소다.

2022년 산림청 나라꽃 무궁화 명소 최우수상, 2024년 전남도 친환경 디자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무궁화는 나라꽃 임에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나라꽃 가치 공유와 무궁화 확산에 인식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성=이형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장흥군은 최근 정남진수산물위판장에서 장흥군수협 주관으로 ‘2026년 초매식 및 풍어제’를 개최하고, 새해 수산을 첫 경매의 시작을 알렸다.

장흥군, 어업인 소득 증대·안전 기원

수산물 브랜드 가치 집중

환경 무산김과 득량만 청정해역에서 갖 잡아 올린 낙지 등이 주 품목으로 올라 활 기찬 경매가 이어졌다.

장흥군은 최근 정남진수산물위판장에서 장흥군수협 주관으로 ‘2026년 초매식 및 풍어제’를 개최하고, 새해 수산을 첫 경매의 시작을 알렸다.

군은 이번 초매식을 기점으로 고품질 수산물 생산 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고, 온·오프라인 유통망 확대를 통해 장흥 수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행사는 김성장 허성군수, 김재승 장흥군 의회 의장, 이성배 장흥군수협 조합장을 비롯한 어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를 맞아 어업인들의 안전한 조업과 풍어를 기원하고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조합에서는 장흥의 대표 특산물인 친

장흥=정명수 기자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최근 북구 임동 광주봉사관에서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급식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따뜻한 나눔 실천

새해맞이 임직원 급식 봉사활동 실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최근 북구 임동 광주봉사관에서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급식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장은 “새해를 맞아 직원들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뜻깊다”며 “올해도 지역사회와의 협안과 재난 상황에 대응해 더욱 안전한 광주·전남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본사방문

△이철호 농협 광주본부
△박장호 농협 광주본부 경영기획단장

광산구, 이주노동자 노동 인권 상담소 호응

산재 신청 긴급 지원 연계 등 권리 보호 지원

광주 광산구 이주노동자 노동 인권 상담소(이하 상담소)가 이용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12일 광산구에 따르면 상담소는 이주 노동자가 일상, 일터에서 겪는 불편, 차별, 인권침해 등에 대해 무료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됐다.

광산구는 업무 등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이주노동자 사정을 고려해 지난해 9월부터 주중 야간, 주말 시간을 활용해 상담소를 열었다.

전문 상담을 위해 상담소에는 변호사

또는 노무사 1명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돋는 통역사(러시아,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2명이 배치됐다.

지난해 마련된 상담소는 총 16회로, 대면과 전화 등으로 이뤄진 상담 건수는 25 회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시연부터 일하다 손가락을 다친 뒤 산재 신청을 두고 사

업주와 갈등을 겪은 사례 등 다양한 내용의 상담이 진행됐다.

도움받을 곳을 찾다, 다른 지역에서 광



광산구는 최근 이주노동자 노동 인권 상담소를 운영하고 일상, 일터에서 겪는 불편, 차별, 인권침해 등에 대해 무료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산구는 상담으로 제도 정보가 부족하거나 법 규정을 잘못 알아 이주노동자가 행사하지 못한 권리를 알려주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고향에 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서 고국에 갔다 온 기간을 근무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한 베트남 청년에게는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도와주고, 일터에서 다친 이주노

동자들의 산재 신청을 지원했다.

광산구는 올해도 이주노동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 상담소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

다.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